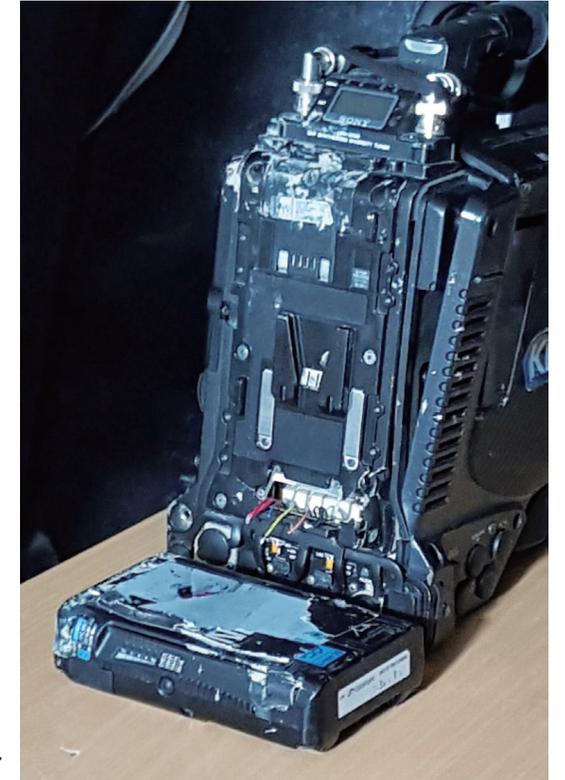


Geçmiş Olsun! (나이지길 바라!)

KBS

최하운 기자



파손된 ENG 카메라. 디스크 투입구는 벌어져 있고, 배터리 접합부는 뜯어져 전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Siktir git!”
(튀르키예의 비속어)

데니즐리주 정부 소속 보안요원이 소리 치는 동시에 상민 선배의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순식간에 막사 안의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군인들은 총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소란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은 오로지 박살 난 ENG 카메라에 머물고 있었다.

‘Geçmiş Olsun, Geçmiş Olsun’
(튀르키예 말로 나이지길 바라라는 뜻)

취재하면서 술하게 외친 그 문장을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튀르키예 지진 출장 7일 차, 어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2023년 2월6일, 순식간에 일어난 규모 7.8의 강진은 튀르키예에 매우 큰 피해를 가져왔다. 회사에선 바로 선발대 팀을 꾸렸고, 후속 보도를 위해 후발대(김상민, 문예슬, 최하운 기자)까지 팀을 꾸렸다. 나는 후발대 팀의 막내 기자로 13일에 출국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약



첫 취재 때 마주한 지진 피해의 흔적

12시간 가까이 되는 비행 끝에 이스탄불을 거쳐 아다나에 도착했다. 아다나의 하늘은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푸르렀고, 포근했다.

현지 취재를 위한 기자증을 받고, 현지 중계를 위한 유심 구매를 마친 순간까지도 내가 재난 현장에 있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았다. 선발대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며 들은 취재 이야기들은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다. ‘시체, 무너진 이슬람 사원, 무너진 공공기관을 취재할 때는 반드시 주의할 것. 시리아와 가까우니 국경지대에 접근할 때는 조심할 것’ 등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어쨌든 나는 이곳에서 정갈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숙소의 침

대도 적당히 폭신하겠다, 다음 날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

2월15일 새벽, 우리는 현지 시각으로 새벽 5시에 숙소를 나와 피해 현장으로 출발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이었다. 약 3시간에 걸쳐 피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제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지진 피해를 보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감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처참했다. 몇 층이었는데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 건물들, 흙과 뒤얽혀 공기 속에 퍼져 나가는 파편 가루들, 주변에 먹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있다.

을 것이 없어 쓰러져 있는 개나 고양이들. 마치 전쟁 영화 속에서나 보던 폐허 그 자체에 내가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다. 압도적인 자연재해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 같아 나는 취재 도중 몇 번이나 얼어붙었다.

피해 현장 인근에 대규모로 조성된 이재민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빼곡하게 들어선 텐트 사이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취재진이 등장하자, 해맑은 모습으로 ‘코리아?’ 이라고 물으며 과자를 건네주는 아이들은 취재의 피로를 씻겨줄 만큼 순수하고 따스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텐트촌에서라도 놀 수 있게, 서로 가

진 책들을 기부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흥장난하거나 그네를 탈 수 있게 소규모 놀이터도 만들었다. 작은 컨테이너에서는 만화 영화가 상영 중이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선생 역을 자처하며 어린이들과 각종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모두 이 상처 속에서 아이들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였을까. 미래 세대로 희망을 전승하려는 어른들의 노력을 직접 마주하니 속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러던 중 2월18일, 튀르키예 재난 출장 6일 차에 일어난 일이다.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또 다른 생존자 구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에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남아있는 민간구조대의 모습

다. 현장으로 가는 길은 슬슬 익숙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2시간 반의 이동 시간도 슬슬 적응하고 있었다. 늘 가던 길이었지만 색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바로, 대규모로 조성된 묘지였다. 막대기가 꽂혀있는 다수의 봉우리를 보고 우리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묘지라고 추측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취재하기 위해 현장 스케치를 우선 하기로 했다. 다섯 컷 남짓 챙겼을 무렵, 약 20m 거리에서 무장한 군인 한 명이 나타나 차를 탄 채로 따라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상상도 못한 채로 군인을 조심

스럽게 따라갔다. 묘지 아래에는 시신 수습을 위한 베이스캠프가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군인이 갑자기 조수석의 문을 열어 ENG 카메라를 뺏으려고 했다. 우리는 강한 저항을 했다. 현지 코디는 차분하게 우리의 목적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완강했다. 점점 총구가 우리 쪽을 향하자, 우리는 ENG 카메라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상민 선배는 차에서 내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촬영본을 지움과 동시에 디스크까지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무시한 채 카메라를 들고 사라졌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우리는 적잖



이재민촌 내의 놀이터 모습

이 당황했다.

그 후 다른 군인이 나타나 전원 차에서 내리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 순간 왜 나는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을까. 혹시 아직도 현실이 아니라 영화 속이라는 착각이라도 한 것일까? 영화 속의 첩보원은 모든 장비를 다 뺏기더라도 옷 속에 권총 한 자루 정도를 몰래 숨겨둔다.

ENG 카메라를 뺏긴 입장에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휴대폰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차량 뒷좌석의 바닥 시트를 몰래 들어 휴대폰을 숨긴 채 차에서 내렸다. 아나 다를까, 내리자마자 시작된 것은 휴대폰 검열이었다.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는 그동안의 취재를 정리한 기록들이 쌓여있었다. 그들은 막무가내로 휴대폰을 탈취했고 예술 선배의 취재 노트북마저 가져갔다. 이 또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코디는 매우 흥분해 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다이하드1의 한스 그루버를 닮은 데 니즐리주 정부 소속 보안요원과 설전을 시작했다.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보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잘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현지에서 받은 기자증마저 압수당하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더 이상 튀르키예에서 취재하지 말라는 선언이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한국의 KBS 소속 기자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이후 약 2시간의 억류가 시작됐다. KBS 뉴스9 시작까지 약 2시간 남은 상황. 휴대폰마저 뺏기자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 것은 방송국 내의 뉴스 제작부와 소통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핑계로 빠져나와 차에 들러 문자 한 통을 서둘러 뉴스 제작

부서에 전송했다.

‘장비 모두 뺏겨 뉴스 제작 불가’

역류가 끝나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유일한 희망인 휴대폰 한 대로 사건 사고 담당 영사와 통화를 했고, 중앙 언론청에서 내 일쯤 방문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텅 비어버린 마음을 안고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 날 해가 질 무렵, 중앙 언론청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는 살벌한 분위기의 그곳을 다시 찾아가다. 꽤 오랫동안 우리를 내버려 뒀고 완전히 어두워질 때쯤이야 우리도 중앙 막사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동하는 길에 바라본 하늘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별이 쏟아질 것 같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별들의 존재는 우리가 무사히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일까. 나는 선배들에게 말했다.

“하늘의 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는 아직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있구나”

그렇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해프닝이었고 결국 우리의 출장은 잘 마무리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캠프 내의 가장 큰 막사에 들어가자마자 무참히 무너졌다. 그곳은 마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던, 테러범과 협상하는 테이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보안요원과 언론청 직원은 서로 마주 앉아 계속 우리의 처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한쪽 구석에서 박살 난 채로 먼지를 뒤집어쓴 ENG 카메라의 모습이었다. 파손된 카메라를 보자마자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기껏 1년 조금 넘게 다뤄왔을 뿐이지만 마치 신체의 한 부분이 뜯겨 나간 것 같은 아픔이었다. 디스크 투입구는 마치 펜치 같은 걸로 억지로 벌린 느낌이었고, 배터리 접합부는 무참하게 파손돼서 카메라 내부의 전선이 다 보일 정도였다.

또한 카메라의 렌즈부터 몸통 끝부분까지 흠터미를 뒤집어쓰고 있는 모습은 매우 충격이었다. 난 그 순간 이미 우리 출장의 마무리는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내 시선은 ENG 카메라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들은 어떤 서류에 서로 서명하더니 휴대폰을 돌려줬다. 그러나 그



매우 살벌했던 중앙 막사의 모습. 파손된 ENG 카메라가 고스란히 놓여있다.

순간 보안요원이 상민 선배의 휴대폰을 빼앗더니 취재 도중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욕설과 함께 벽에 던져버렸다.

언론청 직원은 보안요원을 진정시키고 우리를 데리고 나갔다.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본인들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파손된 ENG 카메라와 휴대폰을 돌려주는 것. 아다나 언론청으로부터 받은 기자증과 수많은 기사가 쓰여있고 자료가 모여있던 예슬 선배의 취재 노트북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우리 팀의 취재는 여기

까지였다.

그 이후 한국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빨리 흘렀다. 복귀하는 길에 바라봤던 튀르키예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낮에는 태양이 먼지 하나 없는 하늘을 비추고 있었고, 밤에는 여전히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심연에는 튀르키예의 아픔, 그리고 우리 팀의 아픔이 있었다. 되찾지 못한 노트북, 기자증 그리고 파손된 ENG 카메라. 새벽부터 일어나 취재해 온 지난날들의 보상이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여전히 쓰

렸다. 가족을 두고 온 느낌이었다. 사무실에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목소리뿐이었다. 그러나 내 귀에는 카메라의 비명만 들렸다. 이후 ENG 카메라는 메인보드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모든 과정을 복기하고 내가 배운 것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우선, 그 나라의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우리의 논리 중 하나였던, 3대 금지 요소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러 다니는 순간 망가진 논리였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정서적으로 안 맞겠거니, 국격에 해가 가겠거니 등 나 스스로 판단한 것은 굉장한 오만이었다.

뒤늦게 해외 언론들이 튀르키예에서 대규모 화장(이슬람 사회에서 시신 화장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다. 매장이 기본이다)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 때문에 보안요원들이 해외 취재진을 민감하게 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했다.

두 번째로, 내 선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해 봤자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는 것

이다. 실제로 우리끼리 발을 동동 굴러봤자 해결에 도움은 전혀 되지 않았고, 사건·사고 담당 영사에게 연락한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조금 더 서둘러서 내용을 전달했다면 하루를 넘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보도의 특수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기자라는 것을 밝히고 보도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도는 분명 영향력이 있다. 실제로 보도 덕분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구호물도 더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당장 내 눈앞에서 아파하는 사람을 직접 구제하는 방법은 아니다. 고통으로 허덕이는 사회에는 결국 보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쓰러져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보도는 결국 2차 접근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아픔에 공감하는 보도의 힘은 분명 위대하다. 그러나 그 안의 기자는 매우 작은 존재다. 어찌 보면 기자가 보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창대한 보도가 미약한 기사를 이끌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늘 보도 앞에서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이켜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튀르키예 지진 취재 2진 팀(왼쪽 사진 순서대로 문예슬, 최하운, 김상민 기자)

출장이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희(喜)를, ENG 카메라 파손 및 역류 사건으로 인해 로(怒)를, 아이를 위한 어른들의 희생에 애(哀)를, 그리고 선배들과 함께 다양한 취재 이야기를 하면서 락(樂)까지. 자연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지만 이 안에 피어나는 인류애와 인간의 감정은 무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을 가슴 속에 묻고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볼 때면 지난 2월의 튀르키예가 생각나 피식 웃음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내 진지한 얼굴이 된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튀르키예의 회복을 바라고 있으므로.

Geçmiş Olsun! 결국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열심히 보도하는 것이 내가 기자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닐까. 🙏

KBS 최하운 기자